

# “접촉자를 찾아라”...방역 최전선 숨은 주역 ‘역학조사관’



박영준 중대본 역학조사 환자관리 2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  
covid-19) 감염 확진자가 새로 나올 때  
마다 ‘접촉자 400명’ 같은 문구가 따라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염자가 병원에  
격리되기 전 거리에서, 시장에서 누구

와 마주쳤는지 한명 한명 파악한 것이  
다. 이런 번거로운 일은 누가하는 것일  
까? 바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  
관들이다.  
박영준 중대본 역학조사 환자관리 2

감염위험자 최대한 빨리...설틈없는 조사·점검 반복

“진술과 함께 휴대폰·카드 사용기록, CCTV도 활용”

팀장은 1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상 몇가지  
질문을 가지고 일한다”며 “이 환자가  
어디서 감염됐을까, 누구에게 전파시켰  
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최대한 빨리 감염위험자를 파악해 자  
가 격리 조치를 해야 병이 확산되는 것  
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들  
의 하루는 험 험이 없다.

박 팀장은 “항상 (환자 발생) 24시간  
이내에 역학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며 “먼저 증상 확진환자가 발  
생되면 기초 역학자료를 분석한다. 보  
건소·시청 등에 사전 준비사항을 지시  
한 뒤 현장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실을 준비하고 회의를 소  
집한다. 현장에 출동하면 6시간 이내 사  
전조치가 대부분 이뤄진다”며 “24시간  
이내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10명 이상,

적게는 5명이 출동한다. 실세 없이 조사  
평가·계획수립·점검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감염자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취조하듯 동선을 묻는 게 좋을  
리 없다.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은  
밀한 사생활의 영역이기도 하다. 때문  
에 이런 감염자를 한명 한명 설득해서  
정확한 동선을 얻어내는 게 역학조사관  
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노후다.

박 팀장은 “환자가 협조를 안 해줄 때  
는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며  
“동선을 정확하게 말했다면 가족과 주  
변 지인들이 보호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 우리는 처벌하기 위해 감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부  
분 협조를 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노하우도 중요하다. 환자가 불  
러주는 대로 받아적으면 허점이 생길  
수 있다”며 “하루 중 어디 어디에 들렀

다고 얘기를 하는데, 밥 먹은 곳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당연히 어디  
선가 밥은 먹지 않았겠다. 이런 곳을 재  
차 물어보는 것도 노하우”라고 설명했  
다.

감염자들의 진술과 함께 신용카드나  
휴대폰 사용기록, CCTV기록도 사용된  
다.

박 팀장은 “카드 사용내용·휴대폰  
사용내역 등 개인정보 조취를 바탕으로  
위치추적을 한다”며 “CCTV를 보는 건  
정말 지루한 작업이다. 그럼에도 놓치  
는 부분이 없으려면 긴장하고 봐야한  
다”고 말했다.

역학조사관들을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건 비협조적인 감염자보다 ‘루머’ 들이  
다. 신속한 상황 파악에 썩어야 할 전문인  
력들이 루머를 확인하는 데 낭비되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산불이 나서 산불을 꺼야  
하는데, 다른 곳에 거짓 산불신고가 나  
서 인력이 분산되는 셈”이라며 “신속하  
게 상황에 대응해야 할 필수 인력들이  
루머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데로 간다”  
고 털어놨다.

뉴스1

## 3번환자 “자진신고했는데 너무 억울...작년 폐렴때보다 증상미미”

명지병원측 “기존 폐렴환자, 신종 코로나 증상이 1/4 수준”

“감염 상상 못해...스스로 보건소 신고했는데 따가운 시선 억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 3번째(54·남) 확진자가 2  
차례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  
하고 12일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퇴원한  
다. 이 환자가 1월26일 확진판정을 받은  
지 17일만이다. 명지병원은 이 날 오후  
2시쯤 퇴원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12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3번 환자는  
지난해 폐렴을 앓아 어느 한 병원에 입  
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그 보  
다 훨씬 경미한 수준이라는 게 병원측  
설명이다. 보건당국도 국내 확진자들

모두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  
어, 3번 환자의 상태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  
준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3번 환자는 상태  
가 계속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오히려  
이 환자가 지난해 앓았던 폐렴때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4분  
의 1수준일 정도로 굉장히 미미했던 상  
황”이라고 설명했다.

3번 환자는 지인인 6번 환자(56·남)  
와 함께 식사를 해 바이러스를 전파한  
바 있다. 이후 6번 환자로부터 연쇄감염

이 일어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달갑지만  
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3번 환자는 처음 입  
국했을 때 바이러스 감염 의심을 안했  
느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며  
“당초 여행과정에서 무리를 하다보니  
미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 감염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3번 환자는 설 연휴(1월24~27일)를  
앞두고 증상을 느끼면서 본인도 우한에  
서 왔으니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병원 관계  
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결국 스스로 검사를 해  
달라고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인데 (따  
가운 시선에 대해) 너무 억울해 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3번 환자는 중국  
우한 국제 폐쇄 센터 한국관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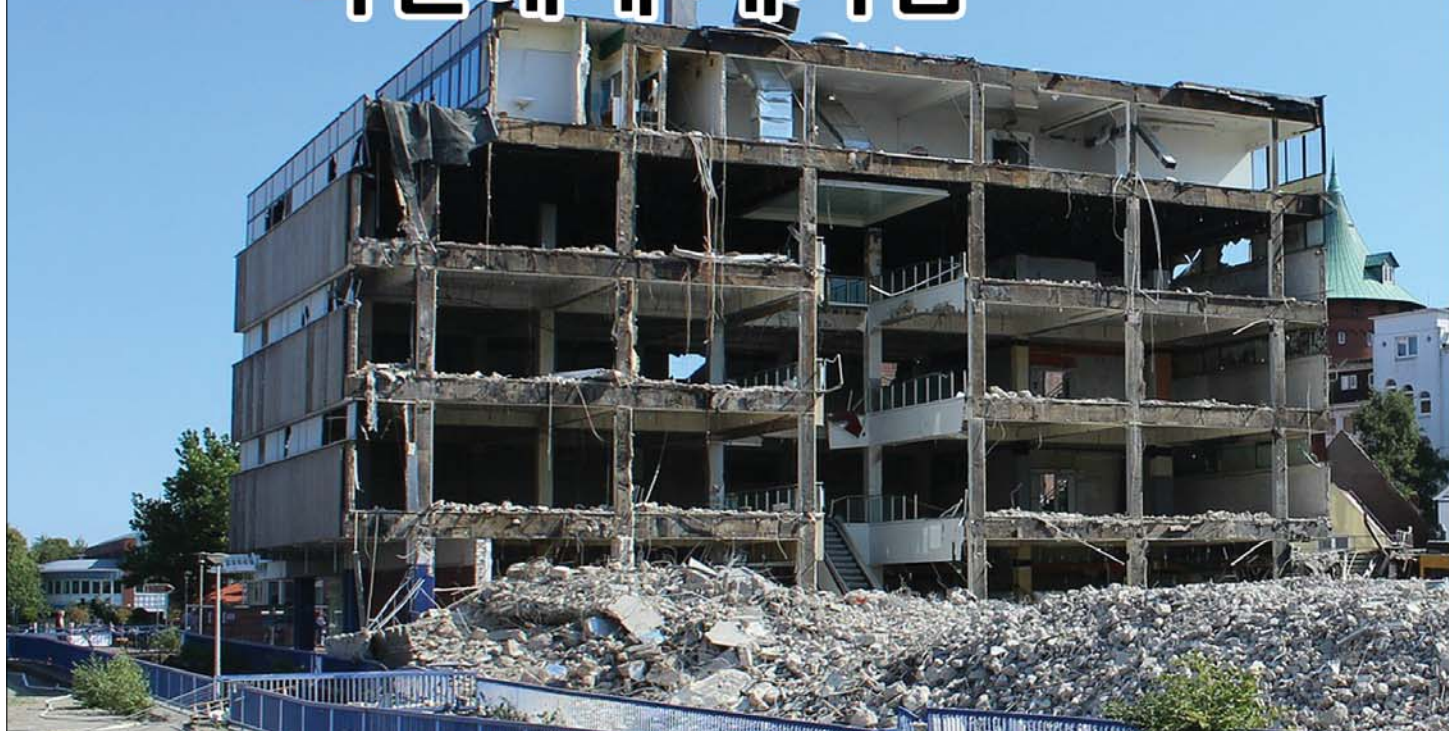


PLACE) 방문자로, 지난 1월20일 입국  
했다.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어 게이트  
검역을 통과했고, 22일 열감과 오한 등  
을 느껴 해열제를 복용했다. 22일부터  
24일까지 6번 환자와 강남 일대 한일  
관’에서 식사를 했고 28번 환자가 진료

를 받는 강남 ‘글로벌 성형외과’에 두  
차례 동행했다.

그러나 25일 모친 자택에서 기침과  
가래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했고, 보건소 구급차를 통  
해 명지병원으로 이송됐다.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